

정보융합진흥원 NEWSLETTER

2023.04 / Vol.7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원장 : 김대진 교수)은 기관내 AI 활용을 통한 연구 활성화를 증진하기 위해 CMC 의료분야 AI 분석용 데이터셋 공모전을 개최했다.
심사 결과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이한비 교수가 발표한 '혈액투석 환자의 빈혈 발생 예측하는 AI 기반 조혈제 처방 서비스 개발'라는 주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진흥원 인터뷰] 성빈센트병원 김지현 정보보호팀장

[진흥원 소식] 간호기록, CDW에서 추출 가능

정보융합진흥원-Parexel, MOU 체결

임상연구 ODP 연구협력문의 게시판 오픈

[진흥원 소식] 의료분야 AI 분석용 데이터셋 공모전 개최

VOICE EMR 소개

의약품 표준용어체계 RxNorm extension

[디지털트랜드] 데이터 관련 입법 동향(디지털헬스케어)

발행처 정보융합진흥원 통합행정팀

TEL 02-3147-9683

FAX 02-3147-9688

발행인 김대진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별관 2층

편집인 김성근, 최인영



I 성빈센트병원 정보보호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경기 남부지역 최초 의과대학병원으로 설립된 성빈센트병원은 빈센트 성인의 정신을 받들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과 섬김의 전인적 치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전산과 개설을 시작으로 OCS운영, 2009년 11월 nU 시스템의 구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질 향상 도모하였습니다.

nU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보호팀으로 개칭하여 정보보호 및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I CMC 산하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 외에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신설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개 해주십시오.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가명화 여부, 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제공 여부 및 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법적 준수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부위원과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정보주체(환자)를 대변하는 자,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인의 외부위원, 해당업무분야 전문가 소위원회 4명의 위원 그리고 간사로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데이터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련부서의 회의 소집 및 위원회 추진을 위한 TFT 구성, TFT회의를 통하여 정보보호팀에서 인원 보충 및 업무 분담 협의, 정보보호팀 인원 총원 및 업무 범위 결정, 2022년부터 데이터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예산 편성, 의료정보팀과 업무 이관 및 의료정보 신청 프로세스 변경에 관한 내부 결재, 외부위원 구성과 운영규정 일부 변경하여 준비과정을 마치고.

2022년 9월 내부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제1차 데이터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소위원회 및 간사를 포함한 제적위원 15명중 14명 참석하여 의사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충족된 제 1차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개최하였습니다.

I 실제 위원회는 어떻게 개최되나요?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나 보완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운영은 정규심의 매월 1회 셋째주 수요일,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위원회 정규심의 구분하여 진행. 신속심의는 매주 수요일 실시합니다.

월 1회 개최되므로 심의신청 마감일 준수가 어려우며 심의신청 간소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I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내부적으로 개선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데이터 심의 위원회의 역할은 무분별한 의료데이터의 유출을 감소하여 본원의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원의 많은 의료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 할 때입니다.

심의 신청이 불편하더라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오니 많은 신청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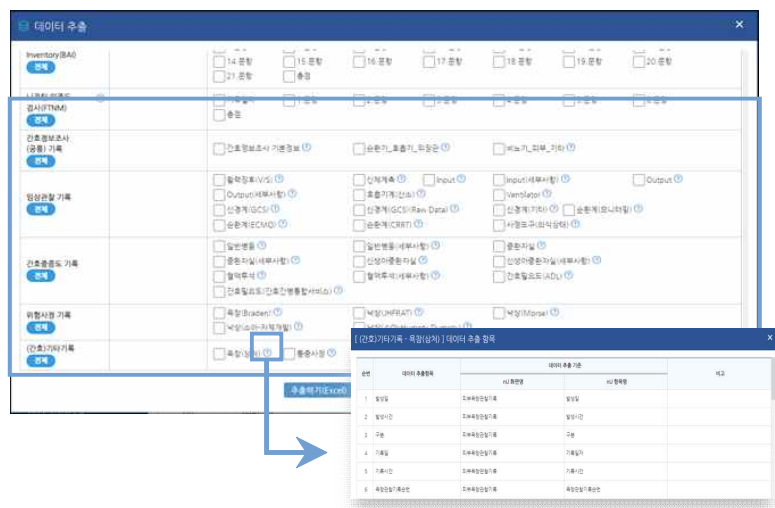
I 가톨릭중앙의료원과 CMC 가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DRB(Data review board)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프로세스 전산화로 연구자, 간사, 심의위원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 CMC산하기관 사용확대를 기대합니다.

간호 기록 데이터, CDW에서 추출 가능

기존의 CDW에서 간호 기록에 대한 정보는 *Case Review를 통해 기록 데이터로 조회할 수 있었지만, 엑셀, CSV와 같은 파일 등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호 기록은 임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CDW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 2월, 드디어 CDW에서 간호 기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성의교정 연구자와 함께 약 3년간의 간호 기본 정보부터 낙상, 욕창 등 38종의 간호 관련 서식지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CDW 데이터 추출 항목으로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서식에 대한 세부 항목과 데이터 출처에 대한 정보를 함께 팝업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CDW는 연구자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여,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ase Review: nU의 통합결과기록, 검사결과를 익명화하여 CDW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CDW에 대한 개선 의견 또는 데이터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정보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CDW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관	부서	전화번호	E-mail
서울성모병원	정보전략팀	02-2258-5802	yjlee@cmcnu.or.kr
여의도성모병원	정보운영팀	02-3779-2385	21801309@cmcnu.or.kr
의정부성모병원	정보운영팀	031-820-3695	22200063@cmcnu.or.kr
부천성모병원	정보운영팀	032-340-2379	20800854@cmcnu.or.kr
은평성모병원	정보운영팀	02-2030-3710	21002524@cmcnu.or.kr
인천성모병원	전산정보팀	032-280-6264	swjeong@cmcnu.or.kr
성빈센트병원	정보보호팀	031-861-8553	kem95@cmcnu.or.kr
대전성모병원	정보보호팀	042-220-9481	kdy6682@cmcnu.or.kr

정보융합진흥원 - Parexel, 업무협약(MOU) 체결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은 최근 세계적인 임상시험수탁기관 PAREXEL(이하 파락셀)과 업무협약(MOU)을 진행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RWE 연구 진행을 위한 양사간 협력체계 구축 ▲연구수행 가능성 (Feasibility) 확인을 위한 협력을 나눴다. CMC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RWE 임상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결과를 통한 임상 근거 기반확대, 다국가·다기관 연구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연구 트렌드 확인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상연구 오픈데이터 포털(CORD) 내 연구협력문의 게시판 오픈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16일 임상연구 오픈 데이터포털(Catholic Open Research Data portal, 이하 'CORD'/<https://cord.cmcnu.or.kr>)을 정식 오픈했다.

CORD는 원내 연구자들이 연구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포털로, 원내 연구자들의 국책과제 수행 및 연구 활용을 돕고 융합연구 기획 창출 및 외연 확대를 위해 개설되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portal 소개 및 조직소개

▲CDW, EDP, CDM 데이터 소개 ▲데이터셋 공개 및 조회 ▲연구환경 조회 및 심의절차 소개 ▲공지사항 등이 있다.데이터 공개는 원내 연구자만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조회는 내/외부 연구자 모두 조회 가능해, 내/외부 연구자가 추후에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디지털치료기기, 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연관된 연구과제 기획 및 병원에 도입 가능한 IT 신기술, 신규서비스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융합진흥원 정보융합연구팀은 연구 협력문의 게시판을 개설했다.

정보융합진흥원 '의료분야 AI 분석용 데이터셋 공모전' 개최

서울성모 신장내과 이한비 교수, 'AI 기반 혈액투석 환자의 빈혈 발생 예측 서비스' 최우수상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은 최근 기관내 AI 활용을 통한 연구 활성화를 증진하고자 CMC 의료분야 AI 분석용 데이터셋 공모전을 개최했다. 데이터셋이란 양질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에 따르면 공모전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참가자 접수 및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공모주제는 ▲임상 의사결정 지원 아이디어 데이터셋 ▲병원 현장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 데이터셋으로 접수는 CMC 전 교직원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이뤄진 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이한비 교수가 발표한 '혈액투석 환자의 빈혈 발생 예측하는 AI 기반 조혈제 처방 서비스 개발'라는 주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한비 교수는 "혈액투석 환자에서의 투석 중 저혈압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한 경험이 있어 CMCnU CDW를 활용하면서 보다 용이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현재 특허 제출 및 해외 출원까지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투석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알고리즘 연구를 발전시키고 개발하여 혈액투석환자 치료를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대진 정보융합진흥원장도 "AI는 의료업계에서도 유망한 분야로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기대했던 만큼 산하 기관들의 열띤 호응과 적극적인 참가로 CMC의 미래가 매우 밝게 느껴졌다"며 "진흥원에서는 연구, 분석, SW 융합 활용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CMC 내 데이터 활용 연구에 대한 참여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Voice EMR 무엇인가요?

의료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한국어, 영어, 숫자, 의료용어를 실시간으로 동시 인식 가능)을 활용해 의무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 솔루션

CMC Voice EMR 기능



보이스커멘드 기능

업무 편의성, 효율성 제고



인공지능 기반 주변 소음 차단 기능

사용자 주변 잡음 및 음성 소리를 제거 인식하여 높은 음성 인식 정확도 실현



자동 입력 연계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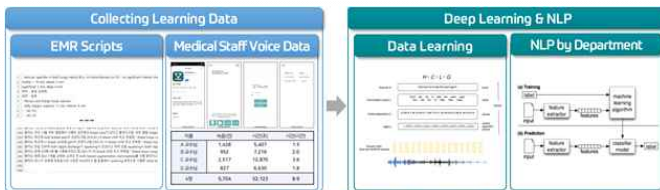
프로그램 활용 범위 확장 및 편의성 제고



템플릿 기능

자주 사용하는 문장의 불필요한 입력을 줄여 기록 작성 시간 감소 및 편의성, 효율성 제고

CMC Voice EMR 음성 인식률



시험 결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91 남강빌딩 6층 (Tel: 02-4257-9658, Fax: 02-4252-2957)	성적서번호 : 2022-254-VSW-R 페이지 (2) / 총 (10)	 ICT시험인증연구소 ICT Training & Certification Lab
--	--	--

시험 결과 요약

번호	시험 항목	신청기관 기준	결과
1	의료용어 음성인식의 오입력률	5% 이하	기준 만족 (1.31%)
2	음성전송 패킷 손실률	5% 이하	기준 만족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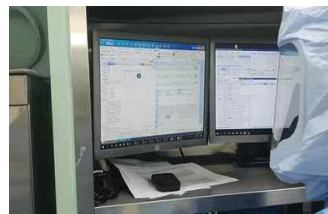
의료진 음성 데이터와 EMR 스크립트를 수집하여 구축된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98% 이상의 정확도 확보**

CMC Voice EMR 사용 사례



환자평가

양손 자유롭게 빠르고 효율적인 간호기록



정형외과 수술실

보호구 착용 시에도 98% 이상의 정확도



병리학 연구결과

템플릿 기능을 통한 편한 병리학 보고서



방사선과 판독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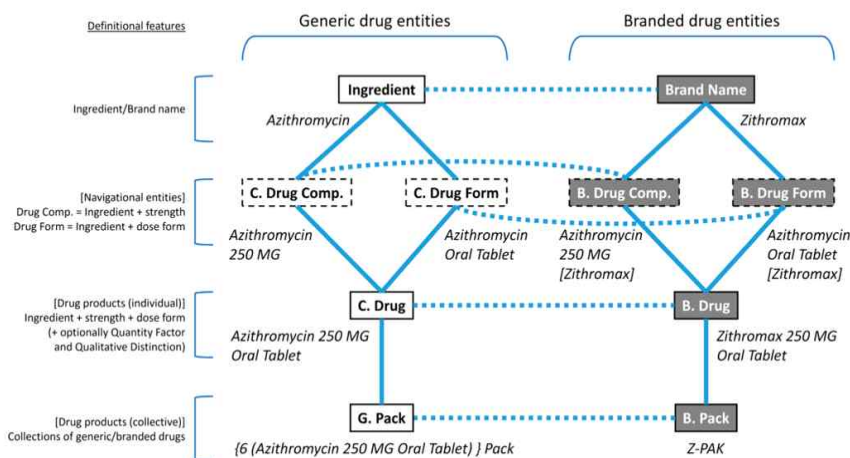
이미지 판독 보고서 50%이상 감소

의약품 표준용어체계 RxNorm, RxNorm extension code

RxNorm 및 RxNorm extension은 의료 분야에서 약물 정보를 표준화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 관련 표준용어체계 중 하나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물질(성분)을, 정해진 용량과 정해진 용법(제형)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때 위의 정보들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표준용어체계가 RxNorm, RxNorm extension이다.

RxNorm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개발한 참조용어체계로, 정확히는 미국의 로컬 용어체계이다.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처방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이름/성분/용량/제형 등의 정보를 표준화하여, 약물 정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어떤 의료시스템에서도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미국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으로 인해, 미국 외의 국가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정보도 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OHDSI 컨소시엄에서 RxNorm의 구조를 본떠 개발한 용어 체계가 RxNorm extension이다.

■ 예시: Azithromycin (CMC의약품 코드 : DW-AZM250)



Reference : Oliver Bodenreider, Ronald Cornet, Daniel J. Vreeman, Recent Developments in Clinical Terminologies- SNOMED CT, LOINC, and RxNorm

RxNorm과 RxNorm extension의 구조는 크게 generic drug entities 와 branded drug entities 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entities에는 이름(성분/상품명), 용량, 제형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각각의 개념들은 전부 고유코드가 있어 1개의 개념만으로 표현할 수 있고 혹은 다수 개념을 조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데이터표준화팀에서는 현재 CMC 의약품코드 4,836건을 RxNorm, RxNorm extension code로 매핑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12월 15일에 CMC 8개 기관의 약제부(팀)을 대상으로 '의약품관련 의료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 CMC 의약품용어 표준화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표준화팀과 각 기관의 약제부(팀) 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의약품용어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회차의 회의를 진행하며 매핑된 CMC 의약품 용어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표준화된 의약품 용어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곳 중 하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이다.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는 2016년부터 민간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CDM을 구축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CDM을 활용하여 의약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MC도 2018년 서울성모병원을 필두로 7개 기관이 점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RxNorm, RxNorm extension으로 매핑된 CMC의약품 데이터 및 여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연구 및 의약품 부작용 분석에 협력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입법 동향

‘데이터 3법’을 넘어 데이터 산업화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으로 데이터 강국을 향한 입법 노력 구체화

데이터 관련 입법 동향

‘데이터 3법’을 넘어 데이터 산업화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으로 데이터 강국을 향한 입법 노력 구체화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데이터가 존재한다.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첨단 기술의 중심에 위치하는 핵심 경쟁력이다. 2021년 IMD 조사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6%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은 디지털 경쟁력 12위에 비해 낮은 26위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수 년 간 ‘데이터 강국’을 향한 활발한 입법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2023년 12월 정부 합동 경제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와 디지털헬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점 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금융, 건강,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융합되는 상황에서 향후 신사업모델 창출과 맞춤형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트렌드의 바탕에는 ‘데이터’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에 현재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데이터 관련 법령과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적 변화와 발전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약칭), 정보통신망법(약칭)]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여 신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과 개인의 삶의 가치와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3법이다. 과감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은 데이터를 산업적 목적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주체인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은 강화하였다. 기존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가칭)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가칭)디지털헬스케어육성법]

현재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크게 2개다. 2022년 말에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육성법)’이 그것이다. 양법 모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

‘22년 10월에 발의된 보건복지부 소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한다. ▲ 디지털헬스케어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 개인 의료데이터의 주체에 의한 전송요구권을 도입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가명처리 절차 법제화 ▲ 디지털헬스특화 규제샌드박스 신설 등이 담겨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법’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육성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책무 등의 정의 ▲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인증지정심의위원회 설치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조세특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디지털헬스케어 진흥방안이 담겨있다.


<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 –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2021년 10월 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을 근거로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데이터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혁신을 아우르는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하여 정부위원 15명과 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 데이터 신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과 중장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기구. 2022년 9월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1호 안건이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 결합전문기관에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넘어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며 연구개발과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 해 말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으며 향후 빅데이터의 체계적·산업적 활용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과기부는 지난 1월 26일 2025년까지 실행되는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데이터 관련 법령 체계는 크게 세가지 축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정보화의 기본법으로서 지능정보화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데이터 3법으로서 행정안전부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2020년에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관련 유사 및 중복 규정을 일원화하였다. 마지막 한 축은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법률로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과 함께 데이터기반 행정법 등이 있다.

의료계의 요구...

현재 법제화가 진행 중인 법령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요구도 존재한다. '22년 12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과 보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에 대해 국민건강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의료데이터를 생산·가공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 보장 ▲ 본인 및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거부권 ▲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를 개인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에 한정할 것 ▲ 보건의료 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 및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의 필수 참여 등을 주장하였다.

정부의 데이터 혁신 강국 지향과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노력 과정에서 많은 이해주체 간 갈등의 해결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전초지로서 바이오헬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초일류 의료기관으로서의 핵심역량은 더 명확해진다. 끝.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란 ?


<https://kidc.e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1년 11월부터 시작한 서비스
- 평소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 (ID,PW)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 확인 가능
- 유출여부 확인 후 추가적인 피해 예방 가능
- PC 및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
- 해당서비스를 통해 유출된 계정이 있다면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로 회원 탈퇴 가능

<https://www.eprivacy.go.kr/>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KIDC ID Checker

보호할 수 없었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자주 사용하는 내 정보의 유출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유출여부 조회하기 →

부서	주요업무	대표번호
정보전략기획팀	IT 전략기획 및 정책수립	02-3147-9613
정보보호팀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관리	02-3147-9622
정보융합연구팀	IT 연구/과제 기획 및 신규서비스 (기술) 도입	02-3147-9634
정보융합팀	빅데이터 및 의료 신기술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02-3147-9642
데이터사이언스팀	빅데이터 가공 및 분석 지원/교육	02-3147-9652
데이터표준화팀	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	02-3147-9662
정보운영팀	CMC IT 운영 및 인프라 관리	02-3147-9673
통합행정팀	정보융합진흥원 행정지원 및 홍보	02-3147-9683

| 홍보 · 구독 신청, 기고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icdb@cmcnu.or.kr

 정보융합진흥원 통합행정팀 02-3147-9683